

탁월한 콘텐츠 향한 동아미디어그룹 2022년 여정 본격 스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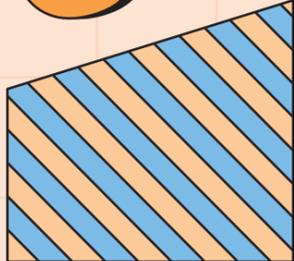
동아미디어그룹 스타트업 2022 사흘간 개최...김재호 사장 "상상의 시야 넓히고 전문성 높여야"

2022



TRUTH

COLLABORATION



EMPATHY

1월 25~27일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스타트업 2022' 모습. 디자인의 영어 단어(진실, 공감, 전문가, 콜라보레이션, 대체불가토큰)는 스타트업 회의에서 제시됐던 주요 키워드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박영대 송은석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성장을 뛰어 넘어 남다른 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탁월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더불어 더 높은 성과를 내는 협업 역량을 키워내야 하며,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1월 25~27일 사흘 동안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 큐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2022(구 연차보고)'에서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상상의 시야를 넓히고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키운다면 또 다른 100년을 열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트업 2022'는 동아미디어그룹 내 계열사 대표들과 동아일보, 채널A 실·국·본부·센터 간부들이 2021년 실적을 정리하고, 2022년 새해 구상을 밝히는 자리다.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은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이었던 2020년 '100년 동아의 레거시를 지키면서도 동아일보 창간 당시의 벤처정신을 살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자'는 취지를 담아 도입했다.

불편부당 시시비비 정신 강조

동아일보 편집국은 팩트와 공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선, 지방선거가 열리는 '선거의 해'인만큼 선거 공약 및

새 정부 시스템 검증 등을 통해 인사와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아일보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잡은 '히어로콘텐츠'는 '래피드 퍼블리싱' 체제를 구축해 연 6회 이상 연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급과 포상도 계획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은 '불편부당 시시비비'에 입각한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 선거 문화를 개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숙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질 방침이다. 편집국 보도를 사실 및 황실수설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와 논설의 콘텐츠 시너지도 높일 계획이다.

채널A 보도본부는 △불편부당 콘텐츠 제작 △뉴스 포맷 다양화 △최고의 기자 양성을 올해 목표로 삼았다. 공약검증, 정치인 현장 마크, 궁금중 해설 등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 중심의 보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각적인 편집으로 정보를 쉽고 친숙하게 알릴 수 있도록 '쇼츠 포맷' 뉴스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멘토링 및 리버스멘토링에 공을 들여 베스트 기자 양성에 나선다.

채널A 다채로운 라인업 기대

지난해 개국 10주년을 맞아 단단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채널A 제작과 사업 관련 본부들은 올해 더 다채롭고 탁월한 콘텐츠를 통해 독자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작본부는 올 한해 킬러콘텐츠, 스펀프 프로그램, 레귤러 프로그램, 시즌제 프로그램을 잇달아 런칭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및 외부기관과의 공동제작으로 시청률과 수익성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제작본부는 이미 1월 <슈퍼DNA 피는 못 속여>,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을 공개해 순항 중이며, 2월에는 <강철부대2> 첫 방영을 앞두고 있다.

<쇼윈도: 여왕의 집>으로 최고시청률 기록을 세웠던 드라마플러스본부는 시즌제 드라마, OTT 합작 드라마, 스토리 예능 및 웹드라마를 순차적으로 선보여 채널A 드라마를 더욱 다채롭게 전개할 예정이다.

경계 없는 도전 계속

이번 스타트업에서는 '더불어 더불어' 되기 위한 협업 계획과 '각자가 서로에게 최고인 나'가 되기 위한 전문성 함양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는 글로벌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업의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자유롭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 일명 뮤턴트(동연변) 협업을 강화해 마케팅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을 경신한 동아시아언스는 콘텐츠 기반의 매거진 미디어로서 웹툰, 스토리 창작 플랫폼 등과 경계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기획을 적극 시도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는 구성원들을 'Thought Leader'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콘텐츠를 제작한다. 구성원들은 DBR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영 아젠다에 대한 개인브랜딩 및 리더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출판국은 기자들에게 3~6개월의 장기 심층취재를 독려해 깊이 있는 기사 발굴 및 기자 개인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 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위축된 위기의 시대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눈을 돌리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전과 사업계획을 힘차게 추진해 목표 이상의 결과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블로로 데이터 기반 전략 결정 강화한다

채널A 시청률 분석에 태블로 적용...다양한 영역 확대 계획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동아미디어그룹이 새로운 플랫폼 '태블로'를 도입한다. 태블로는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 해주는 플랫폼이다. 태블로의 첫 접목 데이터는 채널A 시청률 데이터로 정했다. 이후 디지털 콘텐츠 소비 동향 등 다양한 데이터가 태블로와 접목될 예정이다.

그래픽으로 재탄생한 채널A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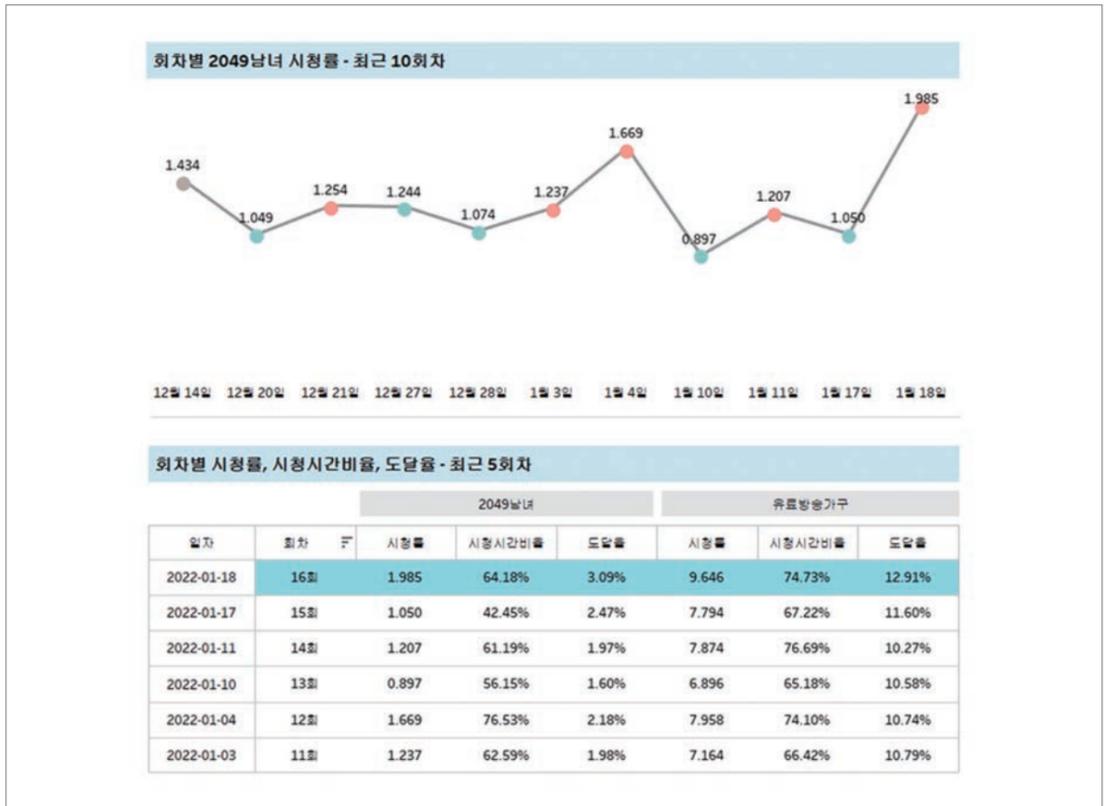
채널A는 2월부터 사내 구성원들에게 태블로를 기반으로 시청률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간 복잡한 숫자로 제공됐던 시청률 자료가 대쉬보드 그래픽으로 변환돼 제공되는 만큼, 보다 직관적이고 분석적인 전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전까진 그룹웨어 공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로 복잡한 시청률 데이터가 전달됐지만, 앞으로는 중복 없이 태블로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가 제공되게 된다. 편성전략본부는 시청률 데이터를 태블로에 입력해 각종 통계 및 분석 자료를 대시보드 형태로 가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시청률 자료와 밀접한 업무를 하는 채널A 구성원들에게는 데이터를 자유 자재로 검색하고 분석 방식을 바꿔보는 기능을 지원하는 개인용 태블로 계정을 부여한다.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태블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회사에서 부여한 계정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태블로 플랫폼에서는 그래픽 위에 커서를 올리면 구체적인 수치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분석 설정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데이터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간단한 시청률 분석 결과만 필요한 구성원들은 새 그룹웨어 '지니어스'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태블로 위젯을 확인하면 된다. 이 위젯을 통해 매일 새롭게 업로드 되는 태블로 대쉬보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태블로와 그룹웨어 모두 모바일 접속을 지원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데이터 기반 전략적 의사결정 강화

편성전략본부는 태블로 도입으로 데이터의 입력과 분석 효율이 높아지는 만큼, 보다 깊이있고 시의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편성전략본부



태블로를 통해 구현된 채널A 새 시청률 데이터 예시. 각종 그래픽으로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관계자는 "목표 시청률 달성도 등 16종의 유의미한 분석 데이터 항목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 자료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록 제작 뿐 아니라 사업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판매, 디지털 서

비스, 광고 매출 등 다양한 데이터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성 역시 데이터 흐름에 따라 더욱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편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조직 내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키워나가기 위해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데이터 분석 콘텐츠 제공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아미디어그룹 콘텐츠의 디지털 소비 동향 파악 지표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병규

동아미디어그룹 새 그룹웨어 지니어스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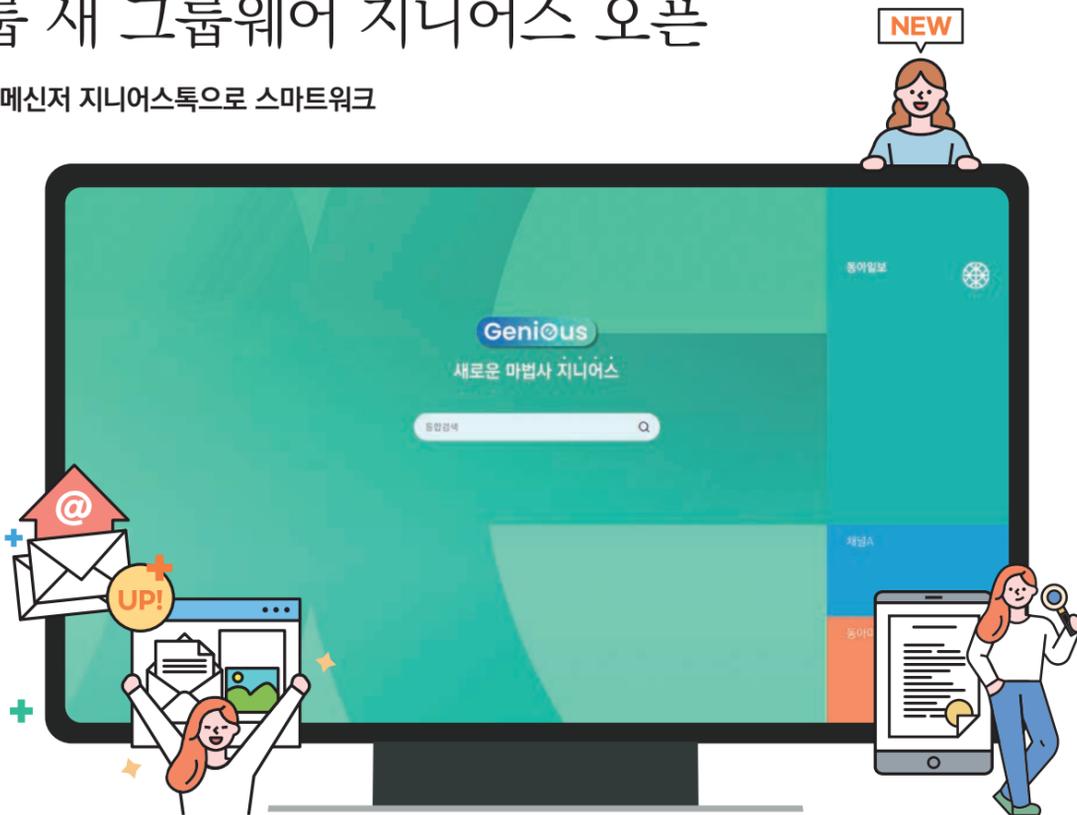
당분간 지니와 함께 사용...사내 메신저 지니어스톡으로 스마트워크

동아미디어그룹의 새로운 그룹웨어 '지니어스'가 2월 4일 드디어 그 첫 모습을 드러냈다. 지니어스는 앞으로 약 두 달여에 걸쳐 사원들의 이용 패턴 및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정 보완작업을 거치게 된다. 기존 지니(Genie)에 있던 데이터 및 연관 플랫폼도 순차적으로 지니어스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나 지니어스의 최종 모습이 확정되면 정들었던 지니는 램프 속으로 문을 닫고 사라지게 된다.

지니어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지니와 달리 모바일 접속을 지원하며 디바이스의 제한, 브라우저의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니어스가 보여줄 기능들을 하나씩 확인해봤다.

모든 업무 휴대전화로 OK!

지니어스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워크'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번 지니어스 런칭을 준비해 온 그룹웨어 고도화 TFT는 △각 계열사의 특성에 맞는 업무 포털 구성 △Any Device, Any Where 시스템 구축 △DAMG 내 협업 지원 △문서, 메일의 자유로운 공유 및 조회하는 대원칙 아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지니어스는 익스플로러에서만 열렸던 기존 지니와 달리 크롬, 사파리 등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제한 없이 구동된다. 또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깔면 외부 취재나 식사, 이동 중에도 손쉽게 사내 정보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메일 기능도 크게 강화했다. 대용량 첨부파일 허용 등 메일 수발신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고 개인 메일함 관리 방식을 개선해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메일 용량을 기존의 열배로 늘렸고, 이를 넘어서는 용량은 메일 아카이빙으로 넘겨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일 아카이빙은 회사 계정으로 들어온 모든 메

일을 압축해 보관하기 때문에 이미 지운 메일까지도 복구가 가능하다. 기존 회의프로젝트 및 팀룸 업무는 업무관리(KISS) 메뉴 안에 구현됐다.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멤버를 등록하고 분류별 게시판을 개설하면 멤버와 메일을 주고받거나 업무 분장과 진행 상황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프로젝트 방에 기록되고 멤버의 스마트폰 알림으로도 전달된다. 기사수정 요청 등 업무 관련 결재들도 스

마트폰 알림을 통해 쉽게 확인한 뒤 모바일에서 바로 처리 가능하다. 사내 메신저는 '지니어스톡'으로 새로 태어났다. 기본적으로 카카오톡과 구성 및 사용방법이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지니어스톡에서 공유한 자료는 기간의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업무 전용 메신저를 사적 메신저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업무 집중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e-HR 시스템에서 해야 했던 출

장, 휴가, 연수 등의 신청은 이제 지니어스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은 e-HR 및 회계시스템과 등과 바로 연동돼 신속히 처리된다.

당분간 지니어스-지니 병행 사용

지니어스는 아직 완성 상태가 아닌만큼 시간이 갈수록 더욱 이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존 지니에 등록된 게시글, 결재문서, 프로젝트방 자료들은 순차적으로 지니어스로 이관된다. DAMG 협업 툴, e-HR 및 MIS(경영정보시스템) 시스템 연동, 문서 양식 추가 등도 예정돼 있다. 지니어스가 안착될 때까지 당분간은 지니도 병행 운영해 기존 데이터 조회 및 인물정보 검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니어스에서는 i-집배신을 연결할 수 없다. 대신 집배신을 대체할 CMS(콘텐츠관리시스템)가 올해 12월 도입돼 지니어스에 즉시 연동될 예정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지니를 통해 i-집배신을 이용하고 지니가 닫힌 후 연말까지는 i-집배신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지니어스 사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견이 있는 사원은 지니어스 Q&A 게시판을 글을 남기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아미디어그룹에 최적화 된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경영지원국 신재균

(1997~2010년 생)

“대체 불가능한 사람 될래요”...채널A, Z세대 팀장 탄생

1997년 생 김상하 CD, 경영전략실 X-SPACE팀장으로

“채널A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며 편하게 회사를 다니고 싶어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표를 묻는 질문에 ‘찐 Z세대’의 대답은 놀랄 정도로 당찼다. 이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막힘이 없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집념과 함께 자유분방한 패기가 느껴졌다. 경영전략실 X-SPACE팀 김상하 팀장(25) 얘기다.

동아미디어그룹에 20대 보직팀장이 탄생했다. ‘청년 벤처’ 시절이던 광복 이전 동아일보 시대를 제외하면 근 수십년 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인사다. 1997년 생인 김 팀장은 2020년 11월 채널A 수습 CD(Creative Director)로 입사했다. 입사 1년여 만에 개별 팀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김 팀장이 이끄는 X-SPACE팀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으로 꾸려진 신생팀이다. NFT(대체불가토큰), 메타버스 등을 이용해 채널A의 각종 콘텐츠를 새로운 미디어 공간에 내놓고 상품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팀명 X-SPACE는 공간의 무한한 확장을 이용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아직은 팀장을 포함해 팀원 3명의 작은 팀이지만 채용계획과 사업포부는 큰 조직 못지않다. 김 팀장은 “채널A가 가지고 있는 IP를 스토리텔링 또는 다른 분야에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려한다”며 “지금까지 채널A는 영상콘텐츠 위주, 유튜브나 디지털 광고 위주로 사업을 했다면 우리 팀은 기존 IP를 변형시켜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X-SPACE팀은 팀 신설 한달

도 채 되지 않아 지난달 중순 도시어부 IP를 활용한 NFT 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제너러티브 아트’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능 NFT로 발전시킨 것. ‘제너러티브 아트’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코딩기술로 자체적으로 작품을 생성시키는 예술이다. 도시어부에서 영감을 얻은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임의로 각기 다른 새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2분기(4-6월) 중에는 도시어부 IP를 활용한 메타버스 맵도 제작할 예정이다.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김 팀장은 “급속히 커지는 NFT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원원할 수 있는 회사를 정확하게 골라 빠르게 컨택했다”며 “마침 협업 파트너도 도시어부 IP로 콜라보를 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채널A IP의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

김 팀장은 X-SPACE팀을 통해 채널A 캔버스에 더 많은 색채를 구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NFT와 메타버스 시장 진출로 채널A가 방송만 하는 곳이 아닌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다”며 “NFT를 그냥 오리지널로 팔기보다는 굿즈를 출시하는 등의 새로운 과정을 더해 색다른 상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X-SPACE팀은 채널A에서 더 나아가 동아미디어그룹의 100년 IP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동아일보가 가진 IP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업기획 또한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김상하 X-SPACE팀장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김준일

사진=편집국 사진부 안철민

“기자, 작가로서의 융합...새로운 시도 기대하세요”

임현석 기자,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



경영전략실 임현석 디지털노베이션팀 기자

사진=편집국 사진부 안철민

직장에서 영업팀 본부장으로 일하는 50대의 주인공은 어느날 수제 원목 식탁을 중고 거래 앱에 무료 나눔으로 내놓는다.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식탁부터 가죽까지,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생경함을 느낀다.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디지털노베이션팀 임현석 기자가 쓴 단편소설 <무료 나눔 대화법>의 시작이다. 임 기자는 이 작품으로 지난 달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에 당선됐다.

임 기자의 당선은 안팎으로 큰 화제였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골을 넣은 것처럼 다들 좋아해주셨다. 자기 자신 일처럼 좋아해주는 분들이 많아 가슴이 참 벅찼다”며 고마워했다.

“정책사회부 시절에 제 기사를 ‘칼날 데스킹’하셨던 이진구 선배가 ‘잘 썼다’고 웃으며 축하해주셨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웃음)”

그런데 왜 동아일보가 아닌 조선일보 신춘문에였을까. 임 기자는 “제게 회사는 공적 영역이고 소설은 사적 영역인만큼, 회사와 분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요즘 소설에서 기피한다는 50대 화자를 내세운 임 기자의 과감한 시도는 취재 현장에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 기자는 “카이로 특파원으로 가기 전 재계 출입을 했는데 그때 만난 50대 임원의 특징은

모두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것이었다”며 “물론 그들의 확신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흔들리기 쉬운 확신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무료 나눔 대화법>은 실제 50대 화자의 확신이 흔들리는 과정을 따라 이야기기 전개된다.

임 기자는 “기자, 작가의 타이틀을 모두 갖게 된 뒤 ‘이제 기사를 그만두고 작품에 몰두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며 “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설은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재미와 감동을 다루잖아요. 반면에 기사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전달하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고 봐요. 기사는 소설을, 소설은 기사를 서로 들여오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임 기자는 요즘 오는 4월 문학잡지에 출품할 새로운 글을 구상하고 있다. 계층, 나이, 연령에 상관없이 한국사회의 중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춘문에 당선으로 일상에 작은 균열을 냈잖아요. 이런 균열을 많이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지 않을까요.”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병규

<강철부대2>, 더 흑독해지고 강력해졌다

22일 첫 방송...흑한기 속 8개 특수부대 접전

채널A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가 시즌2로 돌아온다. 2월 22일 밤 9시 20분 <강철부대 시즌2>(이하 '강철부대2')로 예정된 첫 방송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철부대2>는 육군과 해군만 참가했던 시즌1보다 참가 부대가 확장됐다. 시즌1에 참여했던 해병대수색대, SDT(군사경찰특임대), 특전사(특수전사령부), 707(제707특수임무단), SSU(해안구조전대), UDT(해군특수전전단)에 더해 HID(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와 공군 SART(특수탐색구조대)가 참가해 총 8개 특수부대가 자존심을 건 접전을 펼칠 예정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강철부대2> 출연자 모집에는 시즌1보다 20배 많은 특수부대 예비역 지원자들이 몰렸다고 한다. 선발과정에서는 체력, 전투력이 현역 수준인지와 함께 출신 부대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지, 전우나 동료, 라이벌로서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따졌다. <강철부대2>

를 연출하는 제작본부 2CP 이원웅 PD는 "시즌1에 비해 시즌2 참가자들이 확실 히 더 세졌다"며 "다양한 부대가 나오는 만큼,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참가대원을 응원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 전했다. 시즌2는 시즌1보다 미션 스케일도 진화했다. 이 PD는 "특히 시즌1보다 흑독한 환경에서 첫 촬영을 마쳤다"며 "화면으로도 흑한기의 추위가 그대로 느껴져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더욱 클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철부대2>는 본방송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시즌1에서 특전사 참가대원으로 활약했던 박군이 진행하는 <박갈랑의 강철부대2 Re-MASTER>가 채널A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16회 분량으로 공개된다. 본 방송 직후 공개돼 본 방송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심층 리뷰하고 시청자와 소통할 예정이다. 강철부대 제작진만이 아는 비하인드를 공개하는 <강철의 인(사)벤토리>역시 기대를 모은다. 부

대원 섭외 비하인드부터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뒷이야기까지 공개하는 본격 '신상털이' 콘텐츠이다. 박군이 내레이션을 화제의 출연자를 소개하고 경영 전략실 디지털콜라팀 정현지CD와 안채원CD가 직접 출연자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해 출연자를 인터뷰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보적인 콘텐츠를 끌어낼 계획이다.

<강철부대>는 개성 넘치는 참가자들과 흥미진진한 서바이벌 방식으로 젊은 세대의 큰 관심을 끌며 최고 시청률 6.8%(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2049 최고 시청률 3.803%(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를 기록했다. 채널A 예능 역대 최고 2049 시청률이었다. <강철부대2>가 다시 한번 독창적인 서바이벌 콘텐츠로 신기록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편성전략본부 콘텐츠개발팀 김우준



강철부대2

2월 22일(화) 밤 9시 20분 첫방송

신임 특파원 조은아 김현수 차장, 강성휘 공태현 기자



동아일보와 채널A는 1월 24일 인재 육성위원회를 열어 파리, 뉴욕, 카이로, 베이징 특파원을 선발했다. 3년 임기

의 파리특파원은 편집국 경제부 조은아 차장으로 결정됐다. 올해 6월 임기 만료 예정인 김윤중 특파원의 뒤를 잇

는다. 1년 임기의 뉴욕특파원은 편집국 김현수 차장(연수 중)이 선발됐다. 역시 오는 6월 유재동 특파원과 교대한다. 카이로특파원(임기 1년)은 편집국 강성휘 기자, 베이징특파원(임기 1년)은 보도본부 공태현 기자로 결정됐다. 강 기자와 공 기자는 각각 올해 7월과 5월 황성호 카이로특파원, 사공성근 베이징특파원과 교대한다.



편집국 박상준 기자 '우수법조언론인상'



동아일보 사회부 박상준 기자(사진 맨 왼쪽)가 1월 24일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우수법조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박 기자는 지난해 '법관 인사 공정성 검증'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재판 증거 기록'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러 의혹' 등 다수의 기획기사와 특종 기사를 보도했다.

제 58회 동아연극상 시상식 개최



2021년 동아연극상 작품상에 극단 배아의 <붉은 낙엽>, 국립극단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가 선정됐다.

동아일보는 1월 27일 서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KT와 함께하는 제 58회 동아연극상' 시상식을 열고 작품상과 함께 연기상, 희곡상, 무대에 숭상 등 모두 8개 부문의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신간소개 <아버지의 여인> 동아닷컴 박태근 차장



<아버지의 여인>은 복통으로 대수롭지 않게 병원을 찾았다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내를 황망하게 보낸 남편이 쓴 글이다. 아버지의 '여인'은 책 글쓴이의 아내이자 책 펴낸이의 어머니이다.

사회복지사였던 저자의 아내는 한 평생 노인과 장애인을 자급정성으로 돌봤다. 하지만 갑작스런 말기암 판정에 돌보던 이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하늘의 아내와 대화하며 하루하루를 부여잡았다. 글은 일기 같기도, 시 같기도 하다. 문장의 격식이나 멋스러움은 생각지 않고 형식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써 내려갔다. 그래서 더욱 절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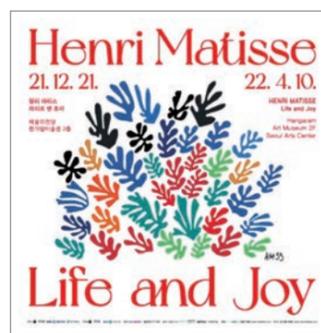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展... 한가람미술관에서 4월 10일까지

동아일보와 문화콘텐츠 전문기업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KBS미디어가 공동주최하는 '앙리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전시회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4월 10일까

지 열린다. 지난해 12월 21일 시작한 이 전시회에서는 마티스의 드로잉과 판화 총 196점을 선보인다. 국내에서 열렸던 마티스 단독 전시 가운데 최다 작품수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로서 '색채의 해방자' '아수파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마티스는 드로잉과 판화를 통해 색만으로 형태를 만들어낸 작품들로 유명하다. '선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이유다.

이번 전시 작품은 주로 마티스가 시도한 6가지 기법의 판화, 가위로 한 드로잉이라 할 수 있는 '종이 오려붙



이기 작업(컷아웃)으로 이뤄져 있다. 기호같이 단순해진 형태의 작품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볍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박은서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전략커뮤니케이션팀

① 입사 첫날의 긴장감과 설렘을 잊지 않고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②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국내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③ 키스팀프



이호일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플랫폼비즈니스팀

① 1인분 +@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배우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자사 콘텐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자사 콘텐츠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③ JTBC